

“문학상 작품 선정·심사기준 공지 필요”

예술위, 국내 문학상 353개 조사 표절 방지·저작권 보호장치 필요 출판작 아카이브 설립도 추진을

지속 가능한 창작생태계 조성 및 공정한 문학상 운영을 위한 작품 선정, 심사 기준의 정확한 공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심사위원 풀 공역 등 문학상 제도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이하 예술위)는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2020년)와 '공정한 문학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 문학상 운영 실태조사'(2021년) 연구를 진행했다.

사실 지역에서 운영되는 문학상만해도 목포문학상, 조태일시문학상, 송순문학상, 서은문명관문학상, 5·18문학상, 고산 윤선도문학상, 영랑문학상 등이 있다. 지역 외에 출판사와 일간지 등에서 운영하는 문학상도 이상문학상, 젊은작가상, 신동엽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동인문학상, 김유정문학상, 대산문학상, 심훈문학상, 현진건문학상 등 다수가 있다.

지명도가 높은 문학상은 기성문인이나 신인 모두 수상을 염원할 만큼, 수상 자체로 명예와 필력을 인정받는다. 그로 인해 문학상 공고에 맞춰 작품을 응모하는 문인들이 적지 않다.

먼저 예술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2021년에 운영한 문학상은 353개로 집계됐다. (2021년도에 운영한 문학상은 249개이며, 2020년도까지는 운영했으나 2021년도에 실시하지 않은 문학상은 104개였음) 또한 상 운영은 문학단체를 중심으로 단독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정부 및 지자체, 출판사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53개 문학상 중 단행본을 출간하는 문학상은 162개이며 미출간은 121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70개였다.

심사방법에 대한 내용은 공고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심사내용 고지보다는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공지했으나 이마저도 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대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소집을 통해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심사함이라는 내용 등의 간략한 공지로 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사후에 심사위원을 선발 및 공지한다' 등의 내용으로 기입돼 있었다.

특히 2021년 문학상을 운영한 249개를 기준으로 212개 문학상에서는 심사에 대한 기준 및 구성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들어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어떻게 소집이 됐는지, 심사평은 무엇인지에 대해 작성하는 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위는 순수 창작자, 문학협회·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도 실시했다. 총 264명의 응

답자 중 문학에 입문하게 된 경로는 신춘문에 당선인 22.3%인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인문학상 49명(18.6%), 작품집 출간 33명(12.5%)으로 집계됐다.

문학상의 지원 경험은 응답자의 76.5%인 202명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문학상이 '실질적 작가의 자격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응답이 81명(40.1%)로 가장 높았다. '공신력 있는 출판사에서 당선작을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서'라는 답은 55명(27.2%)으로 조사돼 문학상이 여전히 전통적인 작가로 인정을 받는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문학상 운영 주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문학상 운영의 목적은 '기성작가의 좋은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하거나 신인작가 발굴'이 주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학상 심사방식은 '예심위원 위촉과 예심내용 공개 이후 본심 진행'이나 '편집부 자체 운영 예심제도'의 형식을 가장 많이 채택했으며 3집제가 그 뒤를 이었다.

예술위는 문학상 운영 개선 방안으로, 문학상 출판작 아카이브 설립, 계약서 디지털화 등 온라인 기반 DB구축, 표절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학인 대상 조사를 통한 정기적 현황조사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문학상 수상 관련 정책토론 분석, 문학 분야 전문가 서면상담과 심층면접, 창작인과 출판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종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안방에서도 본다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생중계

세종문화회관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천원의 행복’ 공연을 올해부터 안방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세종문화회관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 ‘천원의 행복’을 온라인으로 송출한다. 공연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네이버TV 세종문화회관 채널과 쇼핑LIVE 내 ‘공영 라이브’ 채널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올해 ‘천원의 행복’에선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총 12건(19회)을 선보인다.

첫 공연은 오는 29일 열리는 ‘고잉 온 콘서트’다. 암 경험자들의 아름다운 삶은 ‘계속된다(Going-on)’는 의미를 담은 공연으로, 지휘자 서희태와 뉴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가수 소향, 뮤지컬 배우 양준모가 출연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광민 박사의 사회로 암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관객과 나눌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프란츠 폰 주페 ‘경기병 서곡’, 윤학준 ‘마중’, 뮤지컬 ‘사카고’ 모음곡, ‘미녀와 야수’ 모음곡, ‘라이언 킹’ 하이라이트 등을 들려준다.

이어 4월에는 극단 핸드스피크와 함께 수어 연극 ‘사라지는 사람들’을 선보인다. 농인 배우와 청인(비장애인) 배우가 출연해 수어와 음성언어로 연기한다.



양준모 소향

또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5월), 서울시유소년케스트라단(6월), 서울시청소년국악단(6월)이 선보이는 청소년들을 위한 해설이 있는 클래식·퓨전 국악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9~10월에는 피아니스트 박종화와 싱어송라이터 하림의 클래식 버전 동요 무대 ‘동요, 클래식이다’, 아레테 코르네티와 피아니스트 이효주의 ‘가을의 실내악’, 하피스트 광정과 퍼커셔니스트 심선민의 ‘하프 & 타악 앙상블’ 등 실내악 무대가 진행된다.

아울러 연말에는 가족 무용극 ‘나의 심정’(11월)과 판소리 ‘수궁가’(12월)가 관객과 만난다.

자세한 내용은 천원의 행복 누리집 참고. 문의 02-399-1000.

/전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일반예술인 300만원·신진 예술인 200만원 지원

문체부 2만1000명에 창작준비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2년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2만1000명에게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일반예술인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격년제)을 지원하는 ‘창작디딤돌’과 신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 한번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창작씨앗’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내인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작년보다 6000명(180억 원)을 확대하며 일반예술인은 상·하반기 각 9000

명씩 총 1만8000명(540억 원), 신진예술인은 총 3000명(60억 원)을 지원한다. 창작준비금은 신청자 소득 인정액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일반예술인 대상 ‘창작디딤돌’ 신청은 상반기 사업부터 받는다. 희망자는 15일까지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은 4일까지 우편(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창작씨앗’ 하반기 사업과 신진예술인 대상 ‘창작씨앗’ 사업은 7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참고.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향에 대한 기억·80년 광주 시간 시로 형상화

광주 출신 조성국 네 번째 시집 ‘귀 기울여 들어 줘서 고맙다’

시인에게 원체힘은 ‘창작의 저수지’와도 같다. 많은 작품의 모티브가 원체힘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시인은 일평생 자신의 고향과 그곳을 배경으로 한 원체힘을 풀어내는 존재인지 모른다.

광주 출신 조성국 시인이 네 번째 시집 ‘귀 기울여 들어 줘서 고맙다’(문학들)를 펴냈다.

시집에는 자신의 고향 염주마을에 대한 기억과 고등학교 때 겪은 5월 항쟁, 대학 시절의 수배와

수감 생활 등 모두 60여 편의 시가 담겨 있다.

“충 맞은/ 충을 맞아 주는 / 지독한 봄날의 어숙새벽/ 장전된 제 총의 방아쇠를 끝 끝내 당기지도 않았던 최후의// 일과// 거기에서부터 나는,/ 나의 생은 다시 시작 되었으니까/ 당연히 대답이 시퍼런 청춘에 가까워진다”(‘내 나이를 물으니까’ 중에서)

위 작품은 시인이 건너왔던 상실과 고통의 80년 광주의 시간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5월 27일 도

청과 관련된 순간이다. 시인이 “나이를 말할 때면” 한참이나 젊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김형중 평론가의 말대로 “시인의 나이는 바로 1980년 5월 27일의 도청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시인에게 5월 항쟁의 기억은 결코 떨칠 수 없는 ‘시간의 굴레’와도 같다. 끝내 벗어날 수 없는, 여전히 시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기제와 다름없다.

김형중 평론가는 “지난 시대가 한 시인의 영혼을 어떻게 저토록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었는지, 그 시대를 다시 소환해 우리 앞에 재현시키는 시, 부끄러움 속에서 그 시절들을 반추하게 하는 시, 그것이 조성국의 시편들”이라고 평한다.

한편 조성국 시인은 1990년 ‘창작과비평’ 복호에 ‘수배일기’ 연작 6편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슬그머니’, ‘동근 진동’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르피에이(RPA)’ 대체 우리말 ‘업무 처리 자동화’ 선정

국립국어원(국어원)은 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화하는 기술을 일컫는 ‘아르피에이(RPA)’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업무 처리 자동화’를 선정했다.

국어원은 최근 개최된 새말모임을 통해 ‘아르피에이’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업무 처리 자동화’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르피에이’는 인간을 대신해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화하고 소프

트웨어로 자동화하는 기술을 이르는 말이다.

또한 국어원은 자기만족을 위한 소비나 지출 등의 경제 활동을 뜻하는 ‘미코노미’를 대체할 우리말로 ‘자기중심 소비’를 선정했다.

한편 새말모임은 어려운 외래어가 퍼지기 전에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